

차세대 친환경 소형 SUV 새 강자... 기아차 '니로' 타 보니 ...

# “강하고 넓다” ... 탄탄한 연비에 세단 같은 승차감

기아차 친환경 소형 하이브리드 '니로'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질주는 감동 그 자체였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화순 도곡을 왕복하는 약 30km 시승코스 내내 기아차가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평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인함과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디자인 = 시승에 앞서 니로의 외관을 유심히 살펴봤다. 가장 먼저 기아차 특유의 호랑이코 그릴이 눈에 들어왔고, 와이드한 범퍼 디자인과 볼륨감있는 후드 조형에서 SUV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었다. 안정감과 볼륨감이 느껴지는 후면부에서는 특히 'c'를 형상화한 LED 리어컴베이션 램프가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

니로의 실내 디자인은 정돈된 느낌이 강했다. 우선 기능별로 버튼 색상이 구분되어 조작하기 편리했고,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감각적인 조형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울러 탑승객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스티어링 휠, 도어 트림, 기어박스 등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아울러 '동급 최대 공간'을 자랑한다는 니로의 실내는 기대 이상을 넣고 넉넉했다. 상위 차급 수준인 2700mm의 축거(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덕분에 차랑을 타고 내리거나, 운전할 때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배터리 위치 역시 트렁크가 아닌 2열 시트 하단에 배치해 SUV의 가장 큰 매력인 적재 공간을 놓치지 않았다. 427ℓ의 우수한 트렁크에는 볼나들이에 필요한 피크닉 용품 등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라 커피, 가죽 모두에게 유용해 보였다.

◇강력하면서 정숙한 니로, 달리는 재미도 쏠쏠 = 본격적인 시승을 위해 운전석을 앉아 보니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계기판을 통해서 비로소 시동이 걸린 것을 알았지만 정도로 소음이 전혀 없었다. 연료, 배터리 전량의 정보가 집약된 표시창과 다양한 주행 정보를 담은 니로 전용 클러스터는 필요한 정보 한 눈에 들어오는 깔끔하며 세련된 느낌이었다.

별도의 연결책 없이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휴대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활용해 부

소음 거의 없고 주행 성능 탁월

차선이탈경보 등 편의사양 탑재

스포츠모드선 달리는 재미 쏠쏠

- ◇시승차량 사양
- ▲트림명: 니로하이브리드 1.6 GDI노블레스(풀옵션)
- ▲차량가격: 3137만원=2721만원+옵션 416만원(18인치 휠, 드라이빙세이프티팩, 크렐사운드, 8인치 UVO)
- ▲공인연비: 17.1km/ℓ (18인치 기준)

족한 휴대폰 배터리를 채우며 곧바로 시승에 돌입했다.

이번 시승 차량은 하이브리드 전용 신형 카파 1.6 GDI 엔진과 32kW급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141마력을 끌어올린 모델로 우수한 연비는 물론 탁월한 주행성능을 느낄 수 있었다.

조반 저속 주행 시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는 니로는 조용한 상태가 이어졌지만 가속 페달을 밟자 빠르게 치고 나갔다. 아울러 니로는 SUV 차량의 장점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시야가 넓어서 운전하기도 편했다.

한편 급가속, 급감속을 피하는 정도의 연비 운전 습관을 알고 있던 기자에게 '관성 주행 안내'는 신선하고 매우 유용했다. 목적지와 도로 정보를 분석해 차량의 감속 상황이 예측될 경우 클러스터 안내 문구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뗄 시점을 알려줘 자연스레 연비 운전이 가능했다.

에코가 아닌 스포츠 주행모드를 선택해 고속 주행을 체험해 보았다. 카파 1.6 GDI 엔진, 고효율 32 Kw 전기모터가 장착된 니로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도 일반 차량에 뒤지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연비, 고효율 친환경만 떠올리던 초



기자가 탄 '니로' 시승차량이 봄빛에 녹음이 짙어가는 광주~화순간 국도를 배경으로 힘차게 달리고 있다.

〈기아차 제공〉

반과 달리 니로가 SUV란 사실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었다. 디젤 기반 SUV의 매력인 힘있는 주행 성능과 맞먹을 정도로 니로는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었다. 특히 스포츠 주행모드로 변환한 이후에는 추월하거나, 급가속을 반복할 때 힘이 모자란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다.

◇SUV 최고 연비에 안전시스템은 덤 = 니로는 국내 SUV 최고의 연비와 강력한 주행감성뿐 아니라 ▲차량이 운전자의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주

의를 주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각종 카메라와 레이더의 정보를 종합해 선행차량 및 보행자에 대해 급제동 상황 또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전방 추돌상황 발생 시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과 후측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보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등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편의 사양이 탑재돼 운전 중 편의성과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시내주행과 화순 외곽도로를 따라 약 주행했는데 연료게이지는 처음 차를 닦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 사실 차를 주행하다 보면 주행상황에 따라 연비가 공인연비와 차이가 좀 나기 마련인데 시승을 마치고 보니 평균연비가 비슷했다.

전체적으로 연비 주행을 했지만 중간중간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불리한 고속주행을 상당부분 했던걸 감안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수치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벤츠, 전시장·서비스센터 등 네트워크 6곳 개설·5곳 확장

고급차의 명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내에 서비스 네트워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벤츠 코리아는 오는 6월까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인증 중고차 전시장 등 네트워크 6곳을 새로 개설하고 5곳은 확장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 11개 네트워크 중 신규 오픈하는 6곳은 서초 정계·영등포 전시장, 부평·삼성·의정부 서비스센터, 동대문 인증 중고차 전시장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10개(전시장 7개, 서비스센터 3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 4개, 서비스센터 4개, 인증 중고차 전시장 13개 등

총 102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 네트워크 역량 강화는 고객에게 편리한 접근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벤츠 코리아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들은 지난해 1460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약 1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도 확대해 현재 3천100명 가량이던 벤츠 코리아 딜러 네트워크의 직원 수를 연말까지 3천6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벤츠 코리아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

트워크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메르세데스-벤츠만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현대차 '기프트카 캠페인' 사회 약자 자립에 도움

현대자동차그룹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자동차를 선물해 자립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캠페인'이 사회 약자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블로그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최근 기프트카 캠페인 5주년 효과를 분석해 보니 캠페인 신청 당시 주인공 199명의 평균 부채가 2481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851만원으로 630만원 줄었다.

빛이 없는 경우도 기존 23.6%에서 34%로 늘어 총 11명이 부채에서 벗어났다. 5명에 1명꼴로 신용상태가 한 단계 이상 개선됐다.

이들 기프트카 주인공 중 월 200만원 이상 소득자가 61.4%로 늘면서 총 65명이 자립 기반을 마련

했다. 기프트카 캠페인 신청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였던 57명 중 19.3%가 탈수급에 성공했다. 또한 신청자의 16.2%가 차상위 계층에서 탈피해 성공적으로 자립했다. 기프트카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박천평 씨다. 무공해 차를 판매해 월 소득이 85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과거 소득의 471%로 기프트카 사상 가장 큰 성과다.

기프트카 캠페인은 2011년부터 5년간 총 199대의 차량이 제공됐다. 주인공들이 가장 많이 창업한 분야는 이동식 푸드트럭이었고 농수산물 유통, 공업사, 꽃집, 사진 스튜디오, 영상제작 프로덕션 등도 있었다. /연합뉴스

###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 661㎡ (200평) 건축 : 495㎡ (150평)  
연면적 :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인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내쁘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IPALGO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